제12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04 제 12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06 아드 폰테스(Ad Fontes)

07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08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10 인문학의 향연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12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14 수업 안내

15 입학 안내

제 12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배 영 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탐구하며 거기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고찰하면서, 인간과 인생을 넓은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흔히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수행되지만, 이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사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전파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기술발전은 물론이요 그에 수반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패턴의 변형도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높은 자살률과 끔찍한 범죄에서 드러나듯이, 가치관의 혼란을 비롯해 심각한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결국 우리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인간과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문대학은 무엇보다 근원에 주목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는 한국인에게만 주어진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대화를 겪은 다른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과제는 인류의 역사라는 넓은 맥락과 긴 안목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그런 과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해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동서고금을 통해 널리 읽히는 고전을 비롯해 인류의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인물과 저술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인문대학은 최고지도자과정을 Ad fontes, 즉 "원천으로"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제12기 수강생 여러분은 앞으로 20주 동안 "원천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과 저술을 중심으로 삶에 관한 근원적인 주제를 놓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그런 주제를 천착해온 권위자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탐구를 도울 것입니다. 인문학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드 폰테스(Ad Fontes)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속에서 한때 인문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비실용적 학문으로 간주되고 외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들과 많은 대중들의 관심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 및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우리 사회 각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은 본 과정에 참여한 이전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언론 등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월등한 차별성과 수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비전,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문대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12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교육목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적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성찰 능력과 윤리 정신, 다문화적 감수성과 포용력을 함양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교과과정

+ 지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성의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이해
+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향수 배양
+ 사회적 가치와 내면적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 문화 변동과 미래 사회에 대한 거시적 통찰

주임교수단

+ 주 임 교 수 : **배영수**(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부주임교수 : **김기현**(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이창숙(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03월 05일(화)	입학식	
03월 12일(화)	선비정신과 뉴리더십 훈민정음	한영우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황선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03월 19일(화)	양반의 생활사 퇴계, 敬의 철학	김건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
03월 23일(토) ~ 03월 24일(일)	안동 학술 기행 안동문화탐방 [1박2일]	
03월 26일(화)	규장각 정화의 대항해와 만리장성 메이지유신	김호동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박 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04월 02일(화)	2천년을 함께한 비단실의 소리-가야금 김홍도-거장의 세계	이지영 (서울대 국악과 교수) 장진성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04월 09일(화)	문명과 텍스트 1 이상 문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04월 16일(화)	근대화의 전범,영국 철학사를 통하여 본 분석철학의 정신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김기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04월 23일(화)	논어 도덕경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04월 30일(화)	문명과 텍스트 2 16억 인구의 정신세계, 〈꾸란〉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05월 07일(화)	열하일기 건륭제와 열하	조현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범진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05월 10일(금) ~ 05월 12일(일)	중국 학술 기행 중국문화탐방 [2박3일]	
05월 21일(화)	예술과 치유 바이올린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김진엽 (서울대 미학과 교수) 백주영 (서울대 기악과 교수)
05월 28일(화)	서양근대철학의 이해 미국문화에 나타난 미국의 정신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성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06월 04일(화)	전체기수합동수업 전체기수합동강의	
06월 11일(화)	토마스 만 중남미 사회와 문화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창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06월 18일(화)	문명과 텍스트 3 플라톤의 〈국가〉	이태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06월 25일(화)	놀이와 노래 초기불교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법구경 읽기	이창숙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강성용 (서울대 HK 교수)
07월 02일(화)	“서양의 대두” 보고서발표	배영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07월 09일(화)	수료식	

인문학의 향연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헤르만 헤세가 본 이상적 인물은 누구죠?" … 교수들 "지적 열정 놀랍다"

강의실 메운 중년 학생들
안병근 안세 대표, 이윤우 삼성 고문
대기업 임원, 판검사, 병원장 한 반
빵으로 저녁 때우고 수업에 열중

30년 전 캠퍼스 풍경 그대로
"지난주 데카르트 수업 어땠어요?"
"아이고 … 심오했지 … "
방과 후 '맥주집 3교시' 뜨거운 열기

인문학 돌풍 산실 서울대 AFP
2007년 첫 개설 … 수강생 451명 배출
기수별 45명 선발, 경쟁률 최고 3대 1
"왜 나를 떨어뜨리냐" 항의 전화도

6월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저녁 7시 강의를 30분 남긴 학생 열댓 명이 강의실 아래층 식당에 쪼르륵 모여 앉아 밥을 먹는다.

"지난주 데카르트 수업은 어땠어요?"

"아이고… 심오했지…."

"난 지난번이 세 번째 결석이었어. 문제 없으려나." 한쪽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졸업 리포트 제출이 다음주인데 큰일이네."

"작년 수강생이 낸 모범사례 좀 구해볼 수 없을까."

지나가던 교수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리포트 못 썼다고 수업 빠지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대학 교정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대화다. 말하는 이들이 양복 차림의 50~60대 중년 남성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인문학을 배우는 서울대 AFP 10기 수강생들이다. 안병근(69) 안세 대표이사, 이윤우(66)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진우(62) 국립암센터 원장, 박성관(55) 한국증권금융 상무 등 48명이 한 반이다. 이들의 14, 15주차 수업을 함께 들으며 취재했다.

15주차 수업 1교시는 최윤영 서울대 독어 독문학과 교수의 '헤르만 헤세' 강의였다. 예습 자료로 내준 헤세의 『싯다르타』를 읽고 와야 이해할 내용이었다. 강의를 마친 최 교수가 "질문 있나요"라고 묻자마자 우남성(59)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이 손을 들었다. 그는 매 강의 10분 전에 도착해 맨 앞줄에 앉고 매 시간 질문을 던지는 '모범생과'에 속했다. "싯다르타와 고타마 부처가 이별할 때 고타마의 말에는 가시가 들어 있네요. 헤세가 본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누구인가요?"

교수가 답했다. "잘 읽으셨네요. 헤세는 부처를 완벽한 성자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 타석을 놓친 학생들이 뒤이어 손을 들었다. "싯다르타와 고타마 부처, 뱃사공 바즈데바까지 부처가 3명 나오는 것은 서양의 삼위일체 같은 개념 아닐까요?" 이창재(47)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질문이다. 최 교수는 "질문이 점점 어려워진다"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힌두교에서 부처를 자기네 종교에 또 하나의 신으로 끌어들인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90분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 저녁을 못 먹고 온 이들은 준비된 빵과 커피로 간단히 저녁을 때웠다. 2교시는 박성창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한국문학과 한국인'을 주제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대해 강의했다. 수업 후 김용태(54) 서울대 의대 교수는 "법정 스님은 입적 전에 자신의 글을 버리라고 했는데, 한용운은 말년에 자신의 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다른 수강생이 "국어 시험에 항상 나오는 질문인 '님의 침묵'의 님은 누구냐"고 묻자 웃음이 터졌고, 한 수강생이 "한용운의 시 '군말'에서 '너에게도 님이 있더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라는 구절이 답인 듯하다"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후에는 낙성대 인근 맥줏집으로 자리를 옮겨 '3교시'가 열렸다. 매번 그날 강의한 교수가 참석해 수업 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3교시'라고 부른다. 14주차 강의 후에는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참석해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동시대인들은 데카르트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당시 수학과 물리학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나" "신의 현존을 철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새로운 철학의 발견인가, 기존 신학과의 타협인가" 같은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 교수는 "수업 내용과 정확히 관계된 질문이라 가르친 이로서 흐뭇하다"며 "예일대 교수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진지한 지적 열정"이라고 말했다.

맥주 500cc 한 잔에 마른 멸치와 고추장 안주. 20~30년 전 대학생 시절의 술상을 차린 자리는 이들에게 일종의 해방구였다. 박해식(53)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사, 변호사만 해왔는데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질문하니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오규(54)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중학생 이후 처음으로 느낀 문학의 감수성으로, 졸업 리포트에는 내 인생 이야기도 함께 담아볼 참"이라고 말했다. 배움의 과정은 기업인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 현대디엘 신명준(45) 대표는 "인문학을 전공해 뭘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청년들에게 이쪽 전공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구 서울대 교육부총장도 함께했다. 영문학과 교수인 변 부총장의 '셰익스피어' 강의는 AFP에서 8기째 계속되는 '롱런' 강의다. 매 수업 후에 수강생들이 작성하는 강의 평가 설문 결과에 따라 다음 기수 개설 과목에 변화를 준다. 변 학장은 "문화 강좌로 쉽게 생각했다가 첫 강의 때 학생들 수준이 높아 당황했다"며 "지금은 대학원급으로 수준을 높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밤 11시에 시작한 이들의 만남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5주년을 맞은 AFP는 2007년 설립 이래 수강생 451명을 배출했다. 철학과 역사를 배우러 매주 모여든 이들은 누구였을까. 10기수에 걸친 AFP 수강생을 서울대 인문대학과 함께 분석해 봤다. 수강생 451명 중 대기업 임원급 이상이 132명, 중소기업 대표이사급이 129명으로 기업인이 전체의 43%였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임원급은 67명으로 15%였고, 공기업 임원과 정부 고위공무원이 60명(13%), 부장급 이상 판사·검사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급 법조인이 28명, 대학 총장·교수 12명,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인이 9명이었다. 이외에도 언론계와 문화·예술인이 각 6명·4명이었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같은 종교인도 있었다. 성비는 남성 416명(93%), 여성 35명(7%)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원 45 명 안팎인 AFP에는 매 기수 100~15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대 1이다. 지원 자격도 엄격하다. 비상장기업 CEO는 최근 2년간의 회사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번 합격자 발표 다음날에는 담당 교수실로 각 기업 비서실과 회장실로부터 전화가 빗발친다. '어떻게 나를 떨어뜨리느냐'는 항의전화부터 '와인 몇 병 들고 찾아뵙고 싶다'는 읍소형까지 다양하다. 10기의 선발을 맡았던 변창구 부총장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이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할까'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 기업이나 단체 안에서 '학맥'이 형성되는 것도 특징이다. 졸업생이 조직 내 선후배들에게 AFP 수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삼성전자는 이수형 법무실 전무가 2008년, 조원국 부사장이 2009년 수강한 뒤 장창덕·김인주·정현량 전·현직 사장·부사장과 이윤우 전부회장 등 기수마다 1~2명씩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GS홈쇼핑도 2007년 허태수 대표가 2기로 수강한 뒤 5기 노영준 상무, 7기 김상덕 상무를 비롯해 임원급이 줄줄이 수강하고 있다. 수료생들은 이후 동창회를 꾸리고 학습을 이어나간다. 2007년 2기 수강생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만들고 이재식 태평양 대표변호사, 송인회 극동건설 회장 같은 동기생이 모이는 독서모임 '계영회'가 한 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장관)

뒤늦게 예순넘어 주위의 권유로 참여한 AFP 1기 과정에서의 인문학 공부가 경제분야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확 바꾸어놓았다. 수료 후, 나는 지금 4년째 안동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선현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심어주려고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있으니 말이다.

윤재윤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인문학적 시각이야말로 역동적인 재판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재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나는 오늘 저녁 과거 르네상스의 인문학자인 마키아벨리가 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서재에서 인문학과 벗하고자 한다.

김형오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인들도 인문학에 허기와 갈증을 느껴야 한다. 인문학의 식탁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인문학의 샘터에서 메마른 목을 축여야 한다....이제 나는 가을 산의 오솔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에 오크통 속에서 오래 숙성시킨 와인의 향기로움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하영봉
LG상사 대표이사 사장

치열한 경쟁과 메마른 사업환경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문학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가던 사업현장에서도 인간의 본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더욱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면서 본과정을 많은 기업인께 추천하고싶습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은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강사진의 강의와 현지답사를 통해 체득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구상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많은 최고지도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이경현
(주)마크마운트 대표이사 회장

100m 스프린터들의 화려함보다 42.195Km를 끊임없이 달리는 미련스러움이 더 감동을 주듯, AFP는 스피드 경쟁에 지쳐 화려함 뒤에 허탈해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게 하며,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묵묵히 생각케 합니다.
AFP에는 여백이 있고 우직한 벗이 있고 그러면서도 새로움에 대한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강호문
(주)삼성전자 부회장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특별한 이야기들 속에서 인문학의 깊은 매력이 느껴집니다.
"學然後知不足 敎然後知困 故曰敎學相長也"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禮記에 나오는 문구가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목표 달성에만 매여 있던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본 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수업 안내

교육기간

2013년 3월 5일(화) ~ 2013년 7월 9일(화)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40(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2일) 1회, 국외 워크숍(2박3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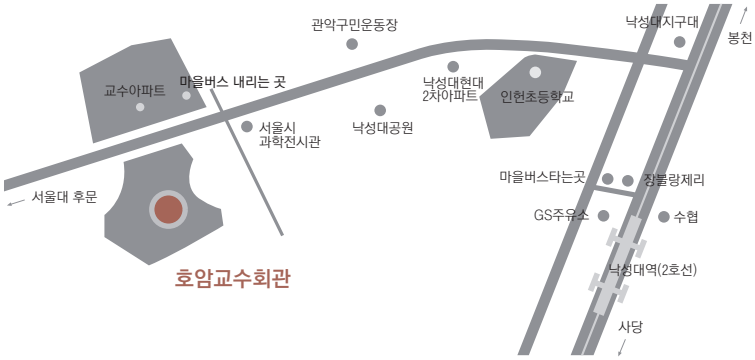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목련홀 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239-1

전　　화 02)880-0311

지 하 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AFP관련 문의처

전　　화 02)880-2570(인문대학 AFP사무국)

팩　　스 02)871-0064

홈페이지 www.snuafp.com

주　　소 (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213호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입학 안내

모집인원	45명 내외
입학자격	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공사기업체 CEO(회장 · 사장 · 임원) + 정부 고위공무원 / 부장급 이상 판 · 검사 / 국회의원 / 장성급 장교 + 교수 / 금융인 / 언론인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전 · 현직 모두 지원 가능
이수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모집기간	2013년 1월 14일(월) ~ 2013년 2월 1일(금) 18:00
제출서류	1) 온라인 지원서(AFP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2)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3) 증명사진(반명함판 규격, 150kb 이상의 jpg 또는 png파일) 4) 자기소개서 또는 기관(회사) 안내 자료 5) 최근 2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 5)는 중소업체 혹은 비상장 기업에 해당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지원접수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홈페이지: www.snuafp.com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가능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213호 이메일: apply@snuafp.com(AFP 사무국 입학전형 담당자)
합격자 발표	2013년 2월 8일(금) 개별통지
등록기간	2013년 2월 11일(월) ~ 2월 22일(금) ※수강료 등은 추후 통지함.

AFP

Ad Fontes Progra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